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0. Vol. 15, No. 1, 91 - 105

## 내재적 종교 성향과 삶의 의미에서 종교적 대처의 매개역할 검증<sup>†</sup>

최 명 심      손 정 략<sup>‡</sup>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종교가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종교적 대처의 매개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J지역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중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응답한 358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측정도구로는 종교 성향 척도, 종교적 대처 척도 및 삶의 의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론적 잠재변수를 대표하는 측정치로는 내재적 종교 성향에는 종교의 내면화와 삶의 방향설정, 긍정적 종교적 대처에는 하나님 및 타인과의 친밀감 추구, 호의적/협조적 대처, 종교적 지시/회심/초점/영적 연결, 종교적 정화/용서, 적극적인 종교적 의탁, 삶의 의미에 관련된 측정치는 삶의 목적과 실존적 공허가 각기 선정되었다.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긍정적 종교적 대처가 내재 성향과 삶의 의미 사이를 부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적 모형이 적절하고 타당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종교 성향, 종교적 대처, 삶의 의미

<sup>†</sup> 이 논문은 최명심의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정리한 것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손정락 (561-756)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전화: 063) 270-2927, E-mail: jrson@jbnu.ac.kr.

20세기 초 심리학이 과학으로 발달하면서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종교가 인간의 성장과 성숙에 이롭다는 주장과 해롭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상반된 연구 결과가 제기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단순히 종교의 유무를 통해서 종교성을 측정하는 측정 방법에 있다. 삶에 대한 공허와 무의미함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 나아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종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을 구별하지 않고 단순히 신앙의 유무에 따라 심리적 안녕과 정신건강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종교성은 내면화된 종교적 믿음 체계나 태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종교적 정체감을 의미하기도 한다(오경환, 1990). 또는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내용을 믿는 정도, 어떤 종교 교단에 대한 관여도, 종교 조직 활동에의 참여 정도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Johnson, 1992). 경험적 연구들은 개인의 내면에 있는 종교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척도들을 사용해 왔는데, 이를 분류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많은 사회과학적 연구들(Hayes & Pittelknow, 1993; Ross, 1990; Sagie, 1993)은 개인들의 종교성을 특정 종교에의 가입 여부로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접근은 종교적 신념의 내용이나 신앙의 동기적 지향 등에 관한 단서를 전혀 포함하지 못하는 매우 단순하고 조잡한 형태이다. 둘째, 종교 의식이나 종교적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Grasmick, Kinsey, & Cochran, 1991; Hoge, Johnson, Luidens, 1993; Ross, 1990) 개인이 지닌 신앙심의 정도를 파악하

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참여 빈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참여 의도나 동기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셋째, 개인의 종교성이 신념의 내용이나 신념에 대한 믿음의 강도로 측정되는데, 종교적 기적, 원리, 사후 세계 또는 신을 믿는지의 여부 등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Hayes & Pittelknow, 1993; Katz & Schmida, 1992; Ross, 1990). 이는 신앙의 내용이나 신앙심의 정도를 파악하는 척도로써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종교성을 신앙의 목적과 관련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교성의 다차원적 구조를 주장하는 입장이다(Allport & Ross, 1967; Bergin, 1991; Ryan, Rigby & King, 1993). 즉, 개인이 신앙을 갖는 목적은 종교를 통해서 의미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아를 보호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심리적 위안을 찾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자는 종교적 교의나 실행에 개인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종교적 참여 자체를 목적으로 간주하는 심리학적 지향인데 반하여 후자는 종교적 참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종교를 자신의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공리적, 도구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지향이다.

Allport(1954)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종교적 관여를 구별하고자 하였는데, 처음에는 제도화된 종교와 내면화된 종교로 구분하였으나, 그 후 종교에 대한 개인의 동기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태도 즉 종교적 성향을 외재적 성향과 내재적 성향으로 구분(Allport & Ross, 1967)하였다. 외재적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개인의 현실적인 이득과 목적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내재적 종교성을 가진 사람은 종교에서 삶의 중심적인 동기를 발견한다. 다시 말하면, 외재적 종교 성향

은 종교를 통해 자신의 안전이나 보호를 유지하고 실제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기적, 방어적, 공리주의적, 자기애적, 전시적, 습관적, 도구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활용한다. 반면 내재적 종교 성향은 성숙된 것으로 이타적이고 헌신적이며, 개인의 확신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확신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知情意)를 통해 삶을 가능한 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계명과 조화시키려고 한다. 또한 다른 욕구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최우선으로 삼지 않으며 자기가 신봉하는 교의(敎義)를 내면화시키고 이를 충실히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등 종교를 생활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가 참된 삶의 추진력이며 생활을 통해서 표현되는 내재적 종교 성향이 종교적으로 성숙한 형태로 간주된다.

종교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자신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사건을 예측하고 통제하며,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준거의 틀을 제공한다(Spilka, Shaver, & Kirpatrick, 1985).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언급하였는데(Pargament, Koenig, & Perez, 2000), 예전에는 신앙심의 전체적인 지표(기도의 빈도, 집회 참석 등)가 종교적 대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Bahr & Harvey, 1979; Sherkat & Reed, 1992). 이러한 평가 방법은 개인이 기도하고, 교회에 출석하거나 종교 방송을 시청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대처과정에서 종교의 기능적인 역할을 밝히기는 어렵다.

종교적 대처 척도는 개인이 종교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스트레스 원을 나누는 방법을 세분화시킨다. 종교 심리학자들도 스트레스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대처 방법이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지를 연구해 왔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대처방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사실이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 입증되었다(Wills, Sandy, Yaeger, Cleary, & Shinar, 2001). 그 결과, 용서, 정화와 고백, 영성적 지원, 종교적 차원에서의 평가, 회심 및 종교적 차원에서의 통제 등의 방법이 정신건강과 정적 상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제석봉, 2002).

Pargament(1997)와 Pargament, Zinnbauer, Scott, Butter, Zerwin 및 Stanik(1998)은 종교적 대처가 신앙심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를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종교적 대처모형의 복잡하고 연속적인 과정을 제시하면서 종교가 개인의 삶과 조화를 이루며 삶에서 당면하는 스트레스들을 처리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Pargament 등(1990)은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종교적 대처 유형에 따라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인 유형의 종교적 대처방식을 선택한 사람은 심각한 스트레스에 봉착할지라도 부정적인 유형의 종교적 대처를 선택하는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보다 건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긍정적인 유형의 종교적 대처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는 우울증 점수가 보다 낮고(Koenig, Cohen, Blazer, Pieper, Meador, Shelp, Goli, & Dipasquale, 1992),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하고(Pargament, Ishler, Dubow, Stanik, Rouiller, Crowe, Cullman, Albert, &

Royster, 1994), 신체적인 건강이 양호하며(Harris, Dew, Lee, Amaya, Buches, Reetz, & Goleman, 1995), 영적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Pargament, et. al., 1990), 사망률의 감소(Oxman, Freeman, & Manheimer, 1995)와도 관련되어 있다. 또한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적 대처를 선택하는 사람보다 불안이나 우울 수준이 낮고(Koenig, 1992),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에서도 공포가 적고(Gibbs & Achterberg-Lawlis, 1978), 행복감이 높다(Francis & Jones, 2000)는 연구들이 있다. 즉, 긍정적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건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하나님을 지지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종교를 통해 개인적 지원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당면했을 때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분석하며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Hathway와 Pargament(1990)는 종교적 대처가 내재적 종교 성향과 심리사회적 능력 및 자존감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형기(2000)도 종교적 대처가 내재적 종교 성향과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종교가 개인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고 의미를 제공한다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종교적인 믿음이 강하고 종교적 수행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종교를 통하여 심리적인 보상과 용기를 얻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뚜렷하게 함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즉, 단순히 종교의 유무가 아니라 종교가 자신의 삶에 내면화되

고 종교 안에서 궁극적인 의미를 지니며 종교적인 신념과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내재적 종교 성향의 사람에게 종교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종교를 자신의 삶에 내면화시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생활화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당면한 문제를 종교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지지적인 파트너로 지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보다 더 긍정적인 신체적, 심리적 정서 상태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적 종교적 대처가 내재적 종교 성향과 삶의 의미 수준을 매개하는 일련의 모델을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종교적 성숙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Allport 등(1967)이 개발한 두 가지 종교 성향 중 내재적 종교 성향을 종교 성향의 지표로 삼았으며, Pargament 등(2000)이 제안한 종교적 대처 유형에서 내재적 종교 성향과 상관성이 높은 긍정적 종교적 대처를 종교적 대처의 지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긍정적 종교적 대처가 내재적 종교 성향과 삶의 의미 수준을 매개하는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 방 법

### 1) 연구 대상

J대학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응답한 사람들과 J, Y, K시에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00부를 실시하

였으나, 375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75%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종교와 삶의 의미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기에, 후기 청소년기의 특징에서 벗어난다고 생각되는 30세 이상 기혼 학생과 회수된 질문지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총 358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측정 도구

**종교 성향 검사.** Allport의 이론을 토대로 제석봉과 이성배(1996)가 개발한 총 26문항의 척도로, 외재적 종교 성향과 내재적 종교 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재적 종교 성향 척도의 재검사 신뢰도, 내적 합치도 및 반분 신뢰도가 각각 .87, .78, .73, 내재적 종교 성향 척도는 각각 .92, .91, .90으로 보고하고 있다.

외재적인 종교 성향은 종교의 진정한 가치를 수용하고 실현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유익이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려는 경향으로 종교를 통해 위로와 안정을 추구하거나 사고, 친목 혹은 사업을 위해 종교의 실용적 도구적 측면을 중시한다. 그러나 내재적인 종교적 성향은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동기를 발견하며, 가능한 종교적 신념에 맞추어 생활하려하며, 교의를 내면화하고 이를 충실히 실현하려고 한다. 따라서 내재적 종교 성향이 높을수록 종교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나타난 내재적 종교 성향의 하위 요인은 신앙의 생활화와 삶의 방향 설정이라는 두 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합치도는 각각 .91, .70이다.

## 종교적 대처 척도(Religious Coping Scale).

Pargament 등(2000)이 종교적 대처 유형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종교적 대처 기제를 측정하고자 종교적 대처 활동 척도를 개발하였다. 척도는 총 21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하위 척도는 다섯 가지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총 105문항으로 이루어진 4점 Likert형 척도다. 이를 번안하기 위해 교환 학생으로 미국에서 2년 동안 생활하였으며 현재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는 1인, 미국에서 심리학 학사학위를 받은 대학원생 1인 그리고 10여년을 영어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교사 1인이 각각 번역 작업을 하였다. 각각이 번역한 질문지를 연구자가 종합하여 수정한 후, 이를 다시 미국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현직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사 1인과 연구자가 영어 문장과 한국어의 차이 등을 논의하여 척도를 번안하였다. 이를 J지역에 위치한 2개의 대학과 교회에 있는 대학생 436명에게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변량 자료에 적합한 추정방법인 최대우도법을 이용하고 사각회전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추출된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의 내적 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긍정적 종교 대처는 다섯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1은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이나 하나님과의 밀접함을 얻기 위한 종교적 대처 하나님과 타인으로 부터의 친밀감을 얻기 위한 종교적 대처 방법들로 이루어진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합치도는 .85다. 요인 2는 의미와 통제를 얻기 위한 종교적 대처 방법으로 호의적이고 잠정적으로 유

익한 방법으로 종교를 통해 스트레스를 재정의하거나, 문제해결에 있어서 하나님을 협조자로 보는 것과 관련된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합치도는 .87이다. 요인 3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나 친밀감을 얻기 위한 종교적 대처 방법으로 스트레스로부터 초점을 이동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활동에 몰입한다거나 개인을 초월한 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합치도는 .86이다. 요인 4는 종교적인 활동을 통하여 영적인 정화를 추구하고, 분노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종교를 찾는 등 인생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 대처 방법으로 구성된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적 합치도는 .80이다. 요인 5는 통제를 얻기 위한 종교적인 대처 방법으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적극적인 의탁을 포함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 합치도는 .82다.

### 삶의 의미 척도(Purpose In Life Test: PIL).

삶의 의미 척도는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공허함과 권태의 상태 혹은 실존적 좌절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Frankl의 이론에 근거하여 실존적 공허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Crumbaugh와 Maholick(1964)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삶의 의미 척도는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부분은 집단 연구에 사용되어 객관적인 점수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7점 태도 척도이다. 척도의 최저 점수는 20점, 최고 점수는 1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와 의미의 정도가 높고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분은 13개의 문항을 완성하는 것이

고, 셋째 부분은 삶의 개인적인 목표나 소망을 쓰는 것으로, 임상적 해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부분만 택하여 NamKung (1980)이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이정지(1995)가 5점 척도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내적 합치도는 Crumbaugh 등(1964)이 개발할 당시 .85였고, 이정지(1995)의 연구에서는 .84였다.

삶의 의미 척도는 개인의 삶의 목적 수준을 측정함과 동시에 낮은 삶의 목적 수준은 실존적 공허 상태로 진단할 수 있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삶의 의미척도의 하위 요인은 삶의 목적과 실존적 공허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내적 합치도는 각각 .80, .73을 보이고 있다.

### 3) 분석 방법

먼저 기초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3.0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신앙 관련 배경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종교 성향, 종교적 대처 방식 및 삶의 의미 수준 간의 상관을 기초 자료로 구하고, 종교적인 대처가 신앙 성숙도와 삶의 의미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접근법인 AMOS 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결 과

### 1) 연구 대상자들의 종교 관련 배경변인들의 특성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 대상자들 중 모태신앙(50.3%)으로 20년 이상(41.3%) 그리고 양친

표 1.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종교 관련 배경 변인들의 특성

변인		빈도	percent
성별	남	166	46.3
	여	192	53.7
신앙생활 기간	3개월 이하	11	3.1
	3년 이하	42	11.7
	3-5년	27	7.5
	6-10년	20	5.6
	10-15년	43	12.0
	16-20년	65	18.2
	20년 이상	148	41.3
입교 과정	모태신앙	180	50.3
	부모님 권유	68	19.0
	친구 등 주변권유	79	22.1
	자발적으로	28	7.8
예배 참석 빈도	일년에 1-2회	14	3.9
	한달에 1-2회	20	5.6
	일주일에 1번	105	29.3
	일주일에 2-3회	152	42.5
	거의 매일	65	18.2
종교 활동 참석빈도	전혀 가지 않음	41	11.6
	1년에 한번 정도	7	2.0
	1년에 서너번	14	4.0
	1달에 1-2번	35	9.9
	1주에 1번 정도	118	33.5
	1주에 2번 이상	134	38.1
개인기도 시간	없다	36	10.2
	10분미만	138	39.2
	10-30분	88	25.0
	30분-1시간	51	14.5
	1-2시간	26	7.4
	2시간 이상	11	3.0
성경이나 신앙서적	전혀 읽지 않는다.	21	6.0
	이따금	153	43.5
	적어도 1주에 1번	53	15.1
	1주에 서너번	67	19.0
	매일	55	15.6
종교적 신념의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1	0.3
	거의 중요하지 않다	6	1.7
	약간 중요하다	12	3.4
	어느 정도 중요하다	71	20.2
	매우 중요하다	106	30.1
	아주 중요하다	153	43.5
부모의 신앙생활	양친 모두 신앙	186	52.8
	부친만 신앙생활	7	2.0
	모친만 신앙생활	93	26.2
	양친 모두 하지 않음	64	18.2

모두(52.8%)가 신앙생활을 해온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주일에 2-3회 예배 참석(42.5%)과 일주일에 1-2회 종교 활동에 참여(71.6%)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종교적 신념이 아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73.6%)고 답하고 있다.

## 2) 삶의 의미 수준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들과의 관련성

신앙생활 기간, 종교 활동 참석, 예배참석 등과 같은 배경 변인들과 삶의 의미 수준과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배 참석의 빈도, 종교 활동에의 참여, 성경이나 신앙 서적을

표 2. 삶의 의미 수준과 배경 변인들 간의 상관

	기간	예배참석	종교 활동	신앙 서적	개인기도	종교 신념	삶의 의미
기간	1.00						
예배 참석	.201**						
종교 활동	.148**	.563**					
신앙 서적	.044	.355**	.384**				
개인 기도	.054	.448**	.467**	.516**			
종교 신념	.168**	.438**	.450**	.367**	.396**		
삶의 의미	.129**	.088	.166**	.136**	.220**	.226**	1.00

\* $p < .05$ (양방검증), \*\* $p < .01$ (양방검증)

표 3. 모델에 투입된 변인의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

	IT1	IT2	F1	F2	F3	F4	F5	P1	P2
IT1	1.00								
IT2	.467**								
F1	.552**	.336**							
F2	.719**	.352**	.619**						
F3	.595**	.419**	.587**	.608**					
F4	.601**	.297**	.577**	.702**	.591**				
F5	.323**	.225**	.403**	.485**	.363**	.323**			
P1	.536**	.198**	.460**	.573**	.389**	.427**	.344**		
P2	.571**	.325**	.535**	.536**	.534**	.454**	.373**	.598**	1.00
<i>M</i>	43.22	7.63	18.18	31.40	25.80	15.86	11.00	20.98	21.17
<i>SD</i>	6.80	1.79	4.09	5.20	5.07	2.88	2.78	3.70	4.00
내적합치도	.91	.70	.85	.87	.86	.80	.82	.80	.73

\*\* $p < .01$ (양방검증)

주. IT1, IT2: 내재성향 하위 요인

F1 ~ F5: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 척도의 하위 요인 1~5

P1, P2: 삶의 의미 척도의 하위 요인



읽는 정도, 개인기도 시간 및 종교적 신념의 중요도 등은 각 변인들 간에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

삶의 의미와의 관계를 보면, 종교적 신념의 중요도, 개인기도 시간, 종교 활동에의 참여정도, 성경 및 신앙서적을 읽는 정도 및 신앙생활의 기간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예배참석의 빈도가 높은 것은 신앙생활에서 요구되는 종교적인 활동들과는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지만, 삶의 의미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고 있다.

### 3) 이론적 잠재변수와 삶의 의미의 상관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위해 이론적 잠재변수들의 측정치와 종속 변인 간의 상관을 구하였다(표 3). 내재적 종교 성향은 신앙의 생활화와 삶의 방향 설정 두 가지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적 종교적 대처 측정치는 하나님 및 타인과의 친밀감 추구, 호의적/협조적 대처, 종교적 지시/회심/초점/영적 연결, 종교적 정화/용서, 적극적 종교적 의탁 소척도로 선정되었다. 삶의 의미에 관련된 측정치는 의미에의 의지와 실존적 공허 두 개의 소척도로 선정되었다.

내재적 종교 성향에서 신앙의 생활화가 삶의 방향설정에 비하여 긍정적 종교적 대처 및 삶의 의미와 관련된 요인들과의 상관에서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삶의 방향 설정은 삶의 의미 중 의미에의 의지와 낮은 긍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 종교적 대처 하위 요인들은 각각의 하위 요인, 내재 성향 및 삶의 의미의 하위 요인들과 모두 긍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적 모형은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가 내재적 종교 성향을 매개하여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로, 종교적 대처의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완전 매개모형 검증.** 종교적 대처의 완전 매개 모형(그림1)은 종교적 대처가 내재적 종교 성향의 영향을 완전 매개하여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정한 것이다. 구조 방정식 모형의 검증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chi^2=76.007^{**}$ ,  $df=25$ ,  $p=.000$ ; CFI=.956, TLI=.921; RMSEA=.087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내재 성향이 긍정적 종교적 대처를 예측하는 경로와 긍정적 종교적 대처가 삶의 의미를 예측하는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분 매개모형 검증.** 긍정적 종교적 대처의 부분 매개모형(그림2)은 긍정적 대처가 내재적 종교 성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한 간접 경로와 내재적 종교 성향에서 삶의 의미로 가는 직접 경로가 모두 가능하다는 모형이다. 부분 매개모형의 검증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chi^2=71.524^{**}$ ,  $df=24$ ,  $p=.000$ ; CFI=.959, TLI=.924; RMSEA=.086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내재 성향이 종교적 대처로 가는 경로와 대처가 삶의 의미로 가는 경로 그리고 종교 성향이 삶의 의미로 직접 가는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보면(표 4), 두 모형 모두 상

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에서 .90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각 모델들의 교차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교차타당도 지수인 ECVI는 낮을수록 좋는데 부분매개 모형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chi^2$  차이검증 실시 결과( $\Delta\chi^2=4.48$ )에서도 0.05의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분 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 즉, 긍정적 대처가 내재적 종교 성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한 간접 경로와 내재적 종교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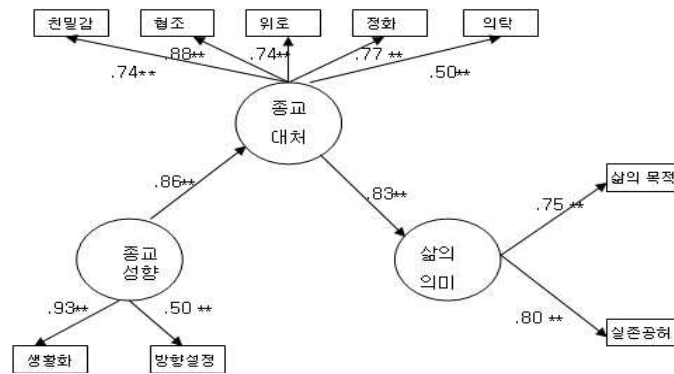


그림 1. 완전 매개모형

\* $p < .05$ ,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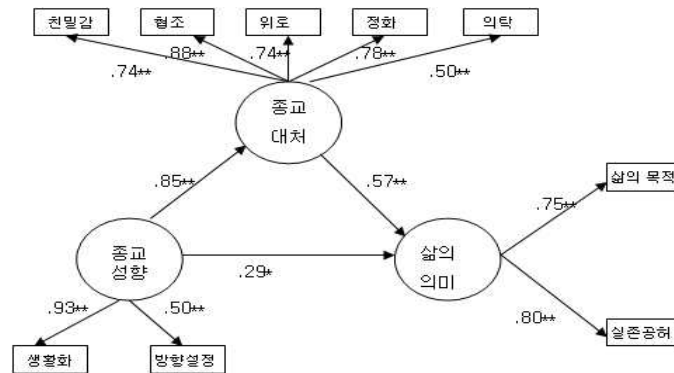


그림 2. 부분 매개모형

\* $p < .05$ (양방검증), \*\* $p < .01$ (양방검증)

표 4. 각 모형의 적합도

모형	$\chi^2$	df	TLI	CFI	RMSEA(90%CI)	ECVI
완전 매개모형	76.007**	25	.921	.956	.087(.065-.110)	.496
부분 매개모형	71.524**	24	.924	.959	.086(.063-.109)	.487

향에서 삶의 의미로 가는 직접 경로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신앙의 성숙과 삶의 의미에서 긍정적인 종교적 대처가 유의한 매개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매개 모형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종교와 관련된 배경 변인들이 삶의 의미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신앙 서적과 개인 기도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에 삶의 의미 수준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내재적인 종교 성향과 긍정적인 대처는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고, 예배 참석과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며, 신앙 서적과 개인적인 기도에 투자하는 시간이 길고, 종교적인 신념이 강할수록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예배참석의 빈도가 높은 것은 종교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는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삶의 의미와는 관련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종교의 유무가 아니라 종교가 자신의 삶에 내면화되고 종교 안에서 궁극적인 의미를 지니며 종교적인 신념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내재적 종교 성향의 사람에게 종교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한다는 주장(지형기, 2000; 한재희, 1992)을 지지한다. 아울러 Soderstrom과 Wright(1977)는 믿음이 일상생활과 적절하게 조화되어 나타날 때는 삶의 의미를 확장하게 하지만, 부조화되어 있는 것은 삶의 목적이 결핍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내재적 종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긍정

적인 종교적 대처와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앙이 성숙할수록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대처 방식을 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교성과 종교적 대처 사이에서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는 방미숙(1994), 이광형(1996) 그리고 Maynard, Gorsuch 및 Bjorck(2001)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는 불확실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이 함께 있다고 확신할수록, 혹은 신이 함께 있고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확신할수록 보다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종교적 대처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는 단지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생활 방향을 제시하고 태도를 설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다. 따라서 신앙의 교리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것이 삶 속에서 통합되어 나타나게 될 때 더 큰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앙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안전과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안목을 갖게 하고 창조주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신앙은 영적인 자각 속에서 삶의 도식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전체 지각 장치가 신앙에 의하여 강력하게 확립되고 미처 깨닫지 못한 삶의 의미를 새롭게 자각하도록 한다(Sanders, 1998). 따라서 기독교 대학생이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재해석하고, 자신과 절대적인 존재와의 관계에서 삶의 태도를 재정립하도록 해준다(사미자,

1998; 이선영, 2001).

긍정적 종교적 대처는 내재적 종교 성향과 삶의 의미 사이에서 매개 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재적인 종교적 성향이 삶의 의미 수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함께 종교적 대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일상생활에서 부딪치게 되는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 성향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대처 방식은 개인의 삶의 의미를 지각하는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종교가 일종의 회피적인 방어 기제이거나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긴장을 감소시키는 수동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태도에 따라 문제를 종교적인 차원에서 인지적으로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처 전략의 하나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종교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단순히 종교의 유무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보다는 그가 지니고 있는 종교적인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종교적인 대처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 방향을 결정하고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스트레스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스트레스 대처 훈련이 있듯이 기독교인들이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스트레스에 대한 종교적 대처 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종교적 대처의 매개 효

과를 검증하였는데 이를 종교생 및 일반 성인 등 각 발달시기별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연구와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와 종교적 대처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방미숙(1994). 문제에 대한 종교적 대처 양식과 그 효율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사미자(1998). 성격과 신앙의 상관성에 관한 고찰. 교회와 신학, 32, 142-176.
- 오경환(1990). 종교사회학. 서울:서광사
- 이광형(1996). 기독교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종교적 대처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선영(2001). 기독교소년의 종교성이 자아정체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지(1995). 의미간호요법이 정신질환자의 자아존중감, 생의 목적과 의미 발견 및 희망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제석봉(2002). 종교적 대처와 정신건강. 종교연구, 26, 25-42.
- 제석봉, 이성배(1996). 종교성향 검사(ROS)의 개발과 종교적 성향이 적응 및 종교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 52, 53-76.
- 지형기(2000). 내재적 종교성향이 종교적 대처 유형을 매개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재희(1992).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에 따른 삶의 의미와 종교적 만족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daing, Mass: Addison-Wesley.
- Allport, G. W., & Ross, J. M. (1967). Personal

-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47-457.
- Bahr, H. M., & Harvey, C. D. (1979). Correlates of loneliness among widows bereaved in a mining disaster. *Psychological Reports*, 44, 367-385.
- Bergin, A. E. (1991). Values and religious issues in psychotherapy and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6, 394-403.
- Crumbaugh, J. C., & Maholick, L. T. (1964). An experimental study in existentialism: The psychometric approach to Frankl's concept of noogenic neuros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
- Francis, L. J., & Jones, S. H. (2000). Religiosity and Happiness: During Adolescence, Young Adulthood, and Later Life.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9(3), 245-258.
- Gibbs, H. W., & Achterberg-Lawlis, J. (1978). Spiritual Values and Death Anxiety: Implications for Counseling with Terminal Cancer Pati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5, 563-569.
- Grasmick, H. G., Kinsey, K., & Cochran, J. K. (1991). Denomination, Religiosity, and Compliance with the Law: A Study of Adult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0, 99-107.
- Harris, R. C., Dew, M. A., Lee, A., Amaya, M., Buches, L., Reetz, D., & Coleman, G. (1995). The role of religion in heart transplant recipients: long-term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34, 17-32.
- Hathaway, W., & Pargament, K. I. (1990). Intrinsic Religiousness, Religious Coping, and Psychosocial Competence: A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Journal for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 423-441.
- Hayes, B. C., & Pittelkow, Y. (1993). Religious belief, transmission and the family: An Australian stud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5, 755-766.
- Hoge, D. R., Johnson, B., & Luedens, D. A. (1993). Determinants of church involvement of young adults who grew up in presbyterian church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2, 242-255.
- Johnson, R. L. (1992). *Religion in society: A sociology of relig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Katz, Y. J., & Schmida, M. (1992). Validation of the student religiosity questionnaire. *Education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 353-356.
- Koenig, H. G., Cohen, H. J., Blazer, F. H., Pieper, C., Meador, K. G., Shelp, F., Goli, V., & Dipasquale, B. (1992). Religious coping and depression among elderly, hospitalized medically ill m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 1693-1700.
- Maynard, E. A., Gorsuch, R. L., & Bjorck, J. P. (2001). Religious coping style, concept of God, and personal religious variables in threat, loss, and challenge situation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0(1), 65-74.
- Namkung, Dalwha (1980). *Purpose in life among Korean high school sen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regon State University.
- Oxman, T. E., Freeman, D. H., Jr., & Manheimer, E. D. (1995). Lack of social participation or religious strength and comfort as risk factors for death after cardiac surgery in the elderly. *Psychosomatic Medicine*, 57, 5-15.
- Pargament, K. I. (1997).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coping: Theory, research, practice*. New

- York: Guilford Press.
- Pargament, K. I., Ensing, D. S., Falgout, K., Olsen, H., Reilly, B., Haitsma, K. V., & Warren, R. (1990). God help me: Religious coping efforts as predictors of the outcomes to significant negative life ev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793-824.
- Pargament, K. I., Ishler, K., Dubow, E., Stanik, P., Rouiller, P., Crowe, P., Cullman, E., Albert, M., & Royster, B. J. (1994). Methods of religious coping with the Gulf War: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3*, 347-361.
- Pargament, K. I., Koenig, H. G., & Perez, L. M. (2000). The many methods of religious coping: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RCOP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4), 519-543.
- Pargament, K. I., Zimbauer, B. J., Scott, A. B., Butter, E. M., Zerwin, J., & Stanik, P. (1998). Red flags and religious coping: Identifying some religious warning signs among people in crisi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4*, 77-89.
- Ross, C. E. (1990). Religion and psychology Distres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 236-245.
- Ryan, R. M., Rigby, S., & King, K. (1993). Two types of religious internalization and their relations to religious orientat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 Sagie, A. (1993). Measurement of religiosity and work obligations among Israeli youth.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 529-537.
- Sanders, J. L. (1998). Religious ego identity and its relationship to faith maturity. *Journal of Psychology, 132*, 653-659.
- Schafer, A. & Gorsuch, R. L. (1991).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religiosity: The multi-variable belief-motivation theory of religiosit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0*, 448-461.
- Sherkat, D. E., & Reed, M. D. (1992). The effects of religion and social support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mong the suddenly bereaved. *Social Indicators Research, 26*, 259-275.
- Sherman, R. M. (2001). *Religious orientation and identity formation: A study of adolescent gir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ng Island University, The Brooklyn Center.
- Soderstrom, D. & Wright, E.W.(1977). Religious orientation and meaning in lif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3*, 65-68.
- Spilka, B., Shaver, P., & Kirkpatrick, L.A. (1985). A general attribution theory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4*, 1-20.
- Wills, T. A., Sandy, J. M., Yaeger, A. M., Cleary, S. D., & Shinar, O. (2001). Coping dimensions, life stress and adolescent substance use: A latent growth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 309-323.

원고접수일: 2009년 7월 14일

수정논문접수일: 2009년 12월 2일

게재결정일: 2009년 12월 21일

# The Mediate Effect of Religious Coping on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Purpose of Life

MyungShim Choi

ChongNak So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influence of religion on meaning of life and mediation path religious coping was identif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he participants are 358 christian college students. Measures was Religious Orientation scale, Religious Coping scale and Purpose of life scale. For the theoretical latent variables, living of religious and direction for living were included for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seeking intimacy with others and closeness to God, benevolent/collaborative religious coping, seeking religious direction/ conversion/focus/spiritual connection, religious purification/forgiving, active religious surrender for positive religious coping, purpose of life and existential vacuum for meaning of life were selected. Hypothetical models are presented from previous study and test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analyses proved that the hypothetical model which religious coping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meaning of life.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of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religious coping, meaning of life*